

# 광주 산업생산 활동 위축 '불황의 골' 깊어만 간다

광주의 산업생산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석유화학과 조선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등 지역 산업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6월에는 국내 소비가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 등을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내리치는 등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 6월중 생산지수 석달째 하락

전남도 유화·조선 빠른 제조업 생산 침체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6월중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17.9로, 전월(118.9)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124.8) 이후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지역 산업계의 생산이 1년 전보다 6.1%나 줄었다. 광주의 산업활동 둔화는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생산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는 6월 들어 SUV승용차와 버스 등의 생산이 1년 전보다 11.8% 감소했으며, 에어컨 등 기계생산도 11.1% 줄었다. 전남은 6월중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12.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석유화학이나 조선 등 일부 업종의 활황효과일 뿐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은 조선업 활황의 영향으로 화물선과 철강유조선 등의 생산이 1년 전보다 68.9% 늘었다. 또 제트유와 병커C유 등 석유정제업 생산이 10.7% 늘어나는 등 '고유가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와 레미콘 등의 생산이 15.8% 감소했으며, 해조류 가공제품과 밀가루 등의 생산도 14.7% 줄었다. 또 열연대강과 칼라강판 생산이 3.7% 감소하는 등 원자재값 급등과 내수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6월중 전국의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6.7%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9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활동 둔화는 소비침체로 이어졌다. 6월중 전국 소비재 판매는 1년 전보다 1.0% 줄었다. 이같은 소비규모는 2005년 1월(-3.3%)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2006년 7월(-0.6%) 이후 1년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항목별로는 고유가 여파로 차량용연료와 승용차 판매가 급감했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월보다 1.1%포인트 떨어진 1.2%에 그쳤다. 이는 7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소비규모는 2005년 1월(-3.3%)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2006년 7월(-0.6%) 이후 1년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항목별로는 고유가 여파로 차량용연료와 승용차 판매가 급감했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월보다 1.1%포인트 떨어진 1.2%에 그쳤다. 이는 7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직장 여성 전용 대출 상품 눈길 농협 '비너스론' 출시

전문직 여성을 비롯한 직장 여성인들을 위한 전용대출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비너스론'을 출시하고, 지난 22일부터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주 이용대상은 전문직 여성,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근무자 등이다. 이밖에 소득확인이 가능한 기업체 정규직 여성 근로자, 여성자영업자도 신용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각 지역농(축)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거래실적(신용카드 가입, 급여이체, 본인결혼, 자녀출산 등)에 따라 최고 1.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은 3년, 할부상환식은 5년, 종합통장(마이뉴스)대출방식은 2년까지다. 일시상환식 및 종합통장대출 방식은 만기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천연조미료 맛은 어떨까  
다 30~40%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점장 황해연) 지하 식품관은 지난달 29일 천연조미료 코너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 코너는 14종의 천연조미료를 진열, 일반 조미료보다 30~40%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현대광주점 제공>

## 지역 中企 절반이 자금난 '허덕'

중기청 67곳 조사... 원자재난·매출 감소 경영악화 요인 꼽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최근 자금곤란을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작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이 지난달 15~17일 광주·전남

지역 6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47.8%에 달했다. 비교적 원활하다는 업체는 4.5%, 보통이라는 업체는 47.8%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원자재난(22.8%), 매출감소(21.1%), 관

매대금 회수지연(19.3%), 금융권 대출 어려움(14.0%)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올해 하계 휴가일수로 3~4일(73.1%), 1~2일(16.4%)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 상여금의 경우 전년에 비해 확대 지급한다는 업체는 3.0%, 전년과 비슷한 수준은 43.3%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光銀 상반기 순이익 716억

광주은행이 올해 상반기 7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창립 이후 최고 실적을 거뒀다. 지난달 3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결과 총자산 16조6천억원, 세전이익 975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2%(1조 4천억원) 늘었으며, 세전이익중 법인세를 감안한 당기순이익은 716억원으로 창사 이후 최고실적을 거뒀다. 광주은행의 실적 증가는 우량대출 중심의 자산증대와 수익모델의 다양

화가 주된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상반기 수익증권 판매잔액은 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8%(7천억원) 증가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8천236억원으로 1년새 37.1%(2천229억원) 늘었다. 또 고정이자여신비율과 연체율이 각각 0.60%, 0.63%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광주은행의 상반기 현재 신BIS자기자본 비율은 10.84%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홍석우 중기청장 광주 강연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리는 제 904회 금요조찬연수에 참석, '변화와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내수·中企 체감경기 '퐁퐁'

韓銀 2,247개 업체 조사... 7월 BSI 1P 하락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천2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1일 내놓은 '7월 기업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실사지수(BSI)는 7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은 71에서 69로, 내수기업은 73에서 71로 각각 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7월 지수는 2006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의 업황 BSI는 87에서 88로, 수출기업은 82에서 85로 각각 올랐다. 한편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울퉁 울퉁이 두번째 60%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체 1천395개사의 6월 중 생산설비 평균가

동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p 떨어진 69.8%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평균 가동률이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업종별로 의료·정밀·광학·시계(76.6%), 화학물 및 화학제품(74.7%), 운송장비(74.6%) 등 8개 업종은 비교적 높은 가동수준을 보였다. 반면 인쇄·기록매체복제업(61.2%), 목재·나무제품(64.8%), 컴퓨터·사무용기기(66.0%) 등 12개 업종은 60%대의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광주세무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첫 도입

광주세무서(서장 배준호)는 지난달 31일 국제청 최초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광주지역세무사회와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제기본법에 보장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에서 무료로 국선세

무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조사의 정정사항과 세법지식 등을 알려주며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날 광주세무서에서 광주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리점 모집**

SM의 '대리점' 모집.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 02-1234-5678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판매서비스 - 월평균 50,000원 - 60,000원대(꾸미자 36회 까지)

**보상판매 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메트리스)를 보상판매

TEL 062) 961-9994